

영광스포티움 천연잔디구장 개방의 날 운영

영광군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의 다양성 확보와 천연잔디구장의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영광 스포티움 천연잔디구장 개방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체육회 및 축구협회와 협약을 통해 2022년 5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기간 중 총 14회(주말) 천연잔디 구장에서 축구경기를 할 수 있다. 영광스포티움 천연잔디구장은 영광군 대표 종합체육시설로 우수한 체육시설로 평가받는다. 시설 사용자는 시설 사용 후 쓰레기 처

리, 시설 안전관리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영광군축구협회는 이번 개방의 날 운영을 통해 매 주말 축구경기를 천연잔디에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체육시설인 천연잔디 구장을 개방하였다”며, “군민들의 체육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주종민 기자

담양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

개인별 원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담양군은 오는 23일부터 ‘2022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사업의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군민 중 건강위험요인(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이 없거나 1개 이상을 갖고 있는 자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을 진단받거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된다.

서비스 참여자는 6개월 동안 보건소에 3회 방문해 혈액검사와 혈압측정, 신체계측, 체성분 검사 등을 받게

되며 건강, 영양, 신체활동에 대한 목표설정과 상담이 이루어진다.

또 걷음과 심박수, 소모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량계 및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를 지급해 이와 연결된 모바일 앱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에게 개인별 원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월별로 진행되는 건강 미션에 참여하거나 앱을 통한 다양한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상위 순위에 오르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담양=조승재 기자

장흥 ‘5·18 기억이 모여 역사’

장흥토요시장 만남의 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장흥군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오월영령을 기리고 오월정신을 이어가고자 ‘장흥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7일 장흥 토요시장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학생,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장흥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어랑어랑 예술단의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추념사·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5·18 민주화운동 상징종 하나인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여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최경석 장흥군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장은 “기억이 모여서 역사가 된다. 5·18 민주화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이며 5·18 민주화운동 희생 결과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성수 장흥군수 권한대행은 추념사를 통해 “우리는 자유, 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싸운 5·18 영령들의 피와 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월정신인 나눔과 연대정신으로 다함께 희망의 5월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함평 “올 여름 ‘함평자연생태공원’ 서 휴가 즐겨요”

2022년 한국관광공사 여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선정

함평자연생태공원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올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함평군은 18일 “함평자연생태공원이 한국관광공사 선정 2022 여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매년 시즌마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하여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25곳의 안심관광지를 선정한다. 이번 시즌 전담에서는 화순 ‘마고함미폭포’, 무안 ‘탄도’, 함평 ‘함평자연생태공원’이 선정됐다. 함평자연생태공원은 대동면 일원



에 조성되어 있는 지역 대표 관광지, 멸종위기의 각종 동·식물을 보존·육성하고, 전시 관람과 생태체험

이 가능하다.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대동제생태공원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원은 저

마다 다른 테마로 조성돼 있다.

먼저 자연생태공원은 ‘쾌적한 자연 환경 보전’과 ‘멸종 위기 각종 동식물 보존 육성’을 주제로 56만㎡ 부지에 조성돼 있으며,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국내 유일의 양서파충류 동물원으로 뱀, 악어 등 특색 있는 종을 관람할 수 있는 생태학습의 장이다. 대동제생태공원은 대동제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오토캠핑장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대한 회복을 위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에서 6월부터 확인 가능하다. /함평=김정섭 기자

화순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내년까지 총사업비 54억 투입... 바나나 재배 시설하우스 3.6ha 조성

화순군이 지난 11일 전라남도 주관 ‘2022년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물 육성,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 재배 시설하우스 조성 사업을 공모에 응모,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2023까

지 2년간 총사업비 54억(도비 10·군비 25·자부담 19)을 들여 3.6ha 규모의 바나나 원예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바나나 재배 시설하우스 등 원예특화단지는 춘양면 일대에 조성된다.

군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전환, 원예작물 수급불안 해소, 고소득 특화작물 육성을 위해 바나나 원예특화단지를 2025년 4.5ha 2027년 6ha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

다. 향후 공동출하, 가공, 저장, 유통 등 바나나 산업화를 추진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아열대 작물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나주 세지면지사협-한전KPS

무릎보호대 나눔 사업 ‘눈길’

나주시 세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경식, 조창수)와 한전KPS(사장 김충현)가 관점연으로 무릎 고통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펼쳐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세지면에 따르면 최근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간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사뽀사뽀 어르신 스프링무릎보호대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반복되는 농사일, 좌식문화 등의 요인으로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어르신의 거동 편의를 돕고자 65세 이상 어르신 100가구를 선정해 스프링 무릎 보호대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세지면 지사협이 지난 달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제안, 한전KPS에서 무릎보호대 200개(760만원 상당)를 구매·기탁해 이뤄졌다.

스프링 무릎 보호대는 무릎 통증 완화를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거동을 도와 활기찬 노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창수 위원장은 “한전KPS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무릎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지역사회 세지면 맞춤형 복지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장성 농특산물 만나러 ‘황룡강 노란꽃장터’ 오세요”

20~29일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축제’ 기간 운영

오는 20일 개최되는 장성 황룡강(洪)길동무 꽃길축제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장성군은 이달 29일까지 10일간 ‘황룡강 노란꽃장터’를 운영한다. 장소는 그라운드 글프장이 조성되어 있는 황룡강 생태공원 인근이다.

황룡강 노란꽃장터는 황룡강 방문 수요를 지역 농산물 판매와 연결시킨 장성 고유의 직거래장터다. 지난해 처음 문을 열어 5월, 10월 두 차례 운영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총

79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해 주목받았다.

올해는 축제기간에 운영해 더 큰 매출이 예상된다.

이번 노란꽃장터에는 총 16개 업체가 참여한다. 토마토와 각종 신선채소부터 과일청, 편백제품, 수국화분 등 다양한 제품이 구비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양질의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과일주스와 파전 등 간단한 먹거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선 14~15일



시범운영을 통해 최종 준비를 마쳤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직거래장터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축제기간 이후에도 황룡강 방문이 이어질 경우, 장터 운영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장성=심재식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자연과 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랑지의 봄



연둔리숲정자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규봉암의 겨울